

01
2025

재외동포의

창



신년 특집 _ 동포 보듬는 재외동포청
신년 기획 _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미주 한인정치인
이슈 & 화제 _ “뇌사 판정 40일 만에 기도가 만든 기적의 생환 드라마”



지리적 좌표 보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할 때

재외동포, 사는 곳 · 국적 관계없이 한국인으로 끌어안아야

1962년에 미국으로 유학 가서 62년째 살고 있다. 은퇴 후 최근에는 매년 한국과 미국을 한 두 번씩 오가면서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가끔 물어본다.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보는 한국의 지정학적 불안이나 정치적 혼돈과는 무관하게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인 위상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고 한국의 기업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시장을 점령하고 있다.

지도만 보고 낯선 땅으로 떠났던 이민 초기, 150달러를 쥐고 유학을 떠났던 1960년대, 그리고 수백만이 태평양을 건너 북미, 남미로 떠났던 '출한국' 시대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보름달을 쳐다보며 고향생각으로 눈물을 흘리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일제강점기 36년, 6·25 전쟁, 가난했던 옛날을 기억하며 지금의 삶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나 역동적인 한국의 오늘과 내일을 내다본다면 과거에만 연연할 수는 없다.

세계 각국에 있는 재외동포와 한국의 지리적 거리는 옛날과 꼭 같다. 그러나 공간을 초월한 경제, 정치, 문화, 언어의 장벽은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 오늘날, 세계는 1일 생활권이 되었고 비자 없이도 수많은 나라를 오가며 인터넷으로 비즈니스를 끝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포함)'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재외동포는 어디 있는지 서있는 지리적 좌표를 잊어버리고 모두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할 때다.

많이 늦었지만, 한국정부가 동포청을 만든 것은 역사적인 일이다. '재외동포를 사는 곳과 국적에 관계없이 한국인으로 끌어안는 작업'이 그 철학이 되었으면 한다. 이는 큰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유대인들, 스위스가 출생 시부터 자기네 백성으로 끌어안는 작업과 같다.

더욱이 한국은 최근 출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으며 세계적인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은 국내에서 생산기지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의 역할은 심각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 즉, 있는 그 자리에서 재외동포가 한국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즉시 구축해야 한다. 출생 후 즉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주는



서문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수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 · 이사장)

방법, 출입국 절차의 간소화, 학문적인 국제교류, 교육부의 엄격한 규제에서 벗어나 외국대학과의 복수 학위를 주고받는 방안, 차세대 과학기술인을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법, 유치를 위한 과감한 조치, 현지에 연구소, 회사를 설립하여 두뇌를 유입하는 것은 동포청 차원을 넘어 세워져야 하는 국가적 과제다. 병역문제 등에서 특혜 논란, 국민정서 등등에 계속 얽매이면 넓은 세계로 나가지 못한다.

오랫동안 미국에 살면서 우리 2세, 3세대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역사와 문화를 전수시켜 한국인의 정체성을 심어주면서 세계시민으로, 또 한국에 기여하게 하는 노력을 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에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주동이 되어 세종과학기술혁신센터를 만들어 한국 기업과 미국 기업이 재미과학기술인들을 통해 접목하고 한국과 미국의 차세대가 못사는 나라를 돕는 전초 역할을 하게 만드는 '홍익인간' 이념을 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구촌 각처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모두 'Think globally, act locally!'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Think and act globally!'의 이념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만 잘사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의 모든 소외된 나라들을 돕는 것은 곧 '세계 1등 국민'이 되는 것이다. 이 지상과제를 위해 한국정부와 동포청은 전략적으로 큰 예산을 들여 과감하게 집행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창**





- 02 창을 열며 지리적 좌표 보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 만들어야 할 때
서문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석좌교수
(전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회장·이사장)
- 04 신년 특집 동포 보듬는 재외동포청
이상덕 동포청장 “한민족공동체 총체적 역량 강화에 매진”
중국 동포들과 생명나눔 위해 단체 헌혈
노인복지관서 고려인 동포와 설맞이 봉사활동
- 10 신년 기획 트럼프 2기 정부 출범과 미주 한인정치인
“상상 못했던 영광...한미 가교 되겠다”
미국 상·하원서 ‘미주 한인의날 지정’ 결의안 공화·민주 공동발의
“한미 경제·안보동맹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 14 이슈 & 화제 “노사 판정 40일 만에 기도가 만든 기적의 생환 드라마”
- 16 초대석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힘 두툼하게 만든 게 큰 보람”
- 18 인터뷰 “2025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축제의 장으로”
- 19 주목! 차세대 31개국 차세대 동포 441명, 한국 배우며 한인 정체성 키워
- 20 뉴스 속으로 12개 지자체와 맞춤형 동포 정착지원 사업 첫 추진
고려인 교사들 “까례야 우라...한민족 자긍심 심을 것”
- 22 OKA 뉴스 동포청, 충북도에 미국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요청 외
- 25 기고문 카자흐스탄 차세대 동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환경과 과제
김상욱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문화원 원장
- 26 재외동포청 공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모든 것, 한상넷서 확인하세요”

발행인: 이상덕
발행처: 재외동포청
주소: (우22009) 인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도타워 34~36층
전화: +82-2-6747-0404, www.oka.go.kr
인스타그램: @overseas_koreans_agency
페이스북: facebook.com/oka202365
유튜브: @OKAKOREA
기획·편집: 재외동포청 **제작:** 연합뉴스

재외동포청(Overseas Koreans Agency)은 외교부의 외청으로 전 세계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 수립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덕 동포청장

“한민족공동체 총체적 역량 강화에 매진”

신년사서 국내 동포 지원 · 민생경제 기여 · 네트워크 강화 추진 다짐

이 상덕 재외동포청장은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2025년 새해 신년사를 통해 “2024년 미국 연방·주의원 선거에서 15명의 우리 동포가 당선되는 등 거주국 사회에서 우리 재외동포 사회의 정치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동포청으로서 이러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더욱 노력하고 동포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 기반 구축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고령화 대응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차원에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복수국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외동포의 역량과 인적자원이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동포청은 사할린동포법을 비롯한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해외 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제·개정했다며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소개했다.

또 동포 지원 체계 정비,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및 다변화,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 한글학교 지원 예산 증액, 차세대 동포 육성 사업 확대 소식도 전했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 방안 적극 모색

이밖에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동포 경제인 간의 동반성장 성과를 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국내 동포를 위한 종합적·실질적 지원 지속 ▲민생 경제에 기여하는 동포 정책 추진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



지난해 11월 28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열린 재외동포인증센터 시범 서비스 개시 기념행사에서 이상덕(앞줄 6번째) 재외동포청장을 비롯해 주요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재일동포간담회에서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원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새해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 여러분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포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재외동포청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재외동포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재외동포청은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미흡하나마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합니다.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법을 비롯한 해외이주법 시행령 및 시행지침, 해외위난에 처한 재외동포 지원에 관한 지침 등을 제·개정 하였고,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동포 지원 체계를 국격에 걸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과 정착지원(무료법률서비스), 고려인동포 대상 한국이해과정 운영, 베트남 귀환여성 한국 국적 자녀 정착 지원 사업, 원폭 피해 동포 및 파독 근로자 지원 등 취약 동포들을 보듬기 위한 행사를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복수국적 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내 시민권 미취득 해외입양동포 실태 파악도 실시하였습니다.

통합민원서비스 확대 및 다변화

각종 민원 서비스에 대한 재외동포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통합민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콜센터 채널(카카오톡 상담, 웹콜, 웹챗)을 다변화 하였습니다. 또한, 원스톱·디지털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및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체계를 구축하였고, 인천공항 내에는 동포청 분소까지 개소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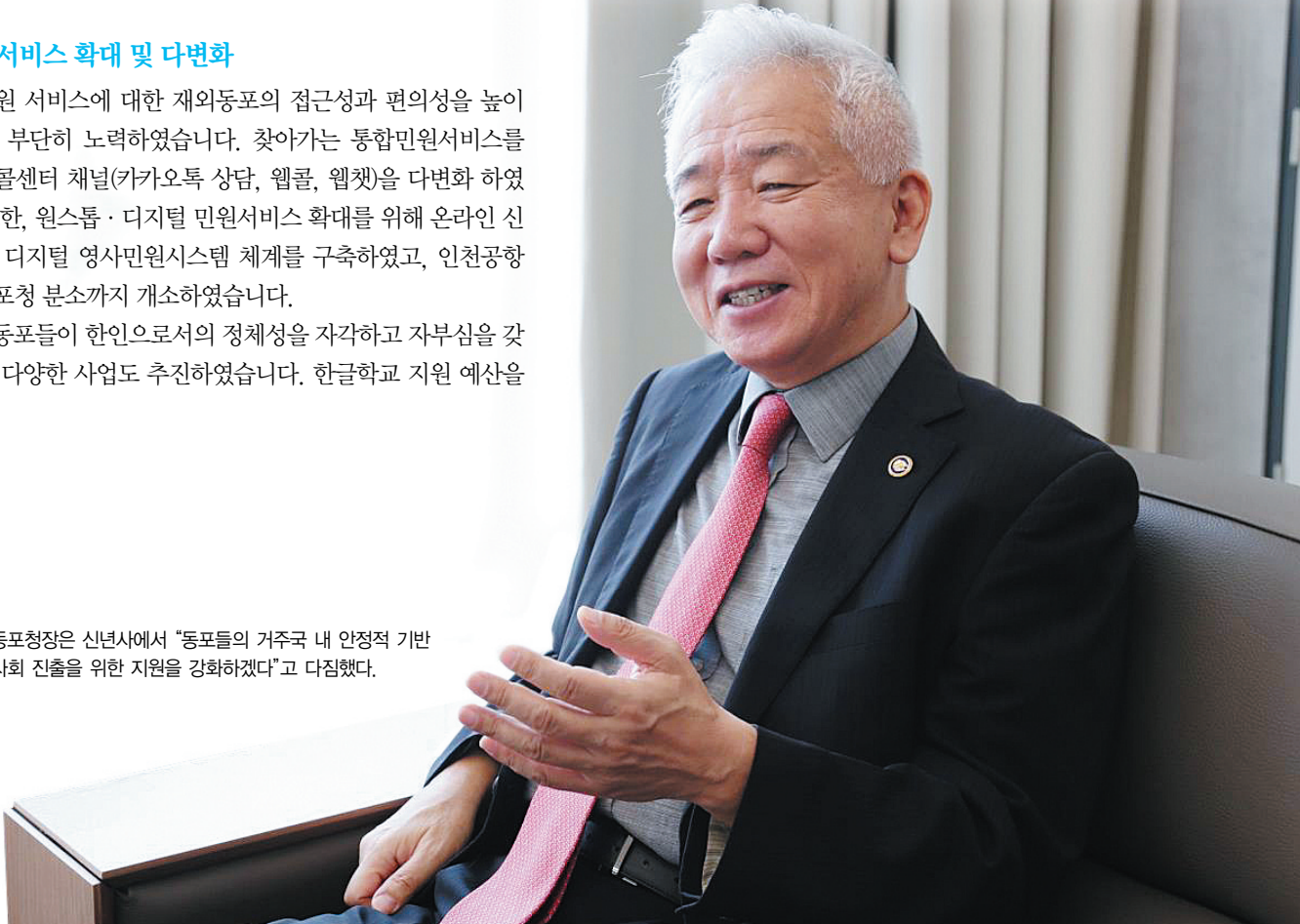
차세대 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각하고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한글학교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하였고,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세계한인 차세대대회, 재외동포 청년인턴사업 등 차세대동포 육성을 위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 및 중소기업 지원·청년취업 확대 지원 등 민생을 위한 노력도 계속되었습니다. 세계한인회장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동포 간 네트워크 및 동포사회와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습니다.

전주에서 개최된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계기에는 2만여 건의 수출상담, 6억3천만 달러 규모의 상담 및 5천800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체결 등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24년 전주 행사는 재외동포기업인·상공인들과 국내 중소기업인들과의 협력과 연계가 본격화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국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신년사에서 “동포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 기반 구축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포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한민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국내동포를 위한 종합적·실질적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내 유입 동포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대한민국에 기여하는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우리 국민들께서 이들에 대해 긍정적·포용적 인식을 가지시도록 하는 노력들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민생경제에 기여하는 동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상기업의 국내 투자 촉진, 한상기업과 국내 중소기업의 연계 확대, 국내 청년들의 해외 취업 촉진 등 범정부 차원의 민생경제 회복 노력에 부응하겠습니다. 금년 4월 미국 아틀란타에서 개최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도 그러한 인식과 목표하에 진행될 것입니다.

내 청년들이 동포기업에서 업무 경험을 쌓도록 하는 인턴십 사업도 인기리에 진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그리고 변화하는 정책 여건을 감안하면서, 2025년에는 보다 내실 있는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 동포 위한 종합적 지원 지속

첫째, '한민족 공동체의 총체적 역량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미국 연방·주의원 선거에서 15명의 우리 동포가 당선되는 등 거주국 사회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정치적 위상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포청으로서 이러한 동포사회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더욱 노력하고 동포들의 거주국 내 안정적인 기반 구축과 주류사회 진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대응 및 글로벌 인재 유치 차원에서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복수국적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재외동포의 역량과 인적자원이 대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강화 위한 지원 내실화

넷째,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인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원'을 내실화하겠습니다. 한글학교 및 동포단체 지원 등 재외동포사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세계한인입양인대회,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 연례 행사들도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과 모국과의 유대감 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에도 재외동포청은 동포 여러분들의 조언과 건설적인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동포 여러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사년 푸른 뱀의 해에 동포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넘쳐나고, 뜻하시는 일들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중국 동포들과 생명나눔 위해 단체 헌혈

변철환 동포청 차장 “중국 동포들, 모범적인 한중간 가교 역할에 감사”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에서 열린 헌혈 행사에 참여한 변철환(왼쪽에서 7번째) 재외동포청 차장과 김호림(왼쪽에서 6번째) 전국동포총연합회 총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헌혈버스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과 전국동포총연합회(총회장 김호림)가 공동으로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앞에서 생명나눔운동인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부족 해소 및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공익활동을 통해 중국 동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동포총연합회 회원 가운데 40명과 재외동포청 관계자 10명 등 50명이 참여했다.

김호림 총회장은 “최근 무안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도 회원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다녀왔다”면서 “중국 동포들은 다른 외국 동포들과는 달리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게 현실로, 중국 동포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차원에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총연합회 감사를 맡고 있는 임도경 (주)우리동행 대표는 “한국에 살고 있는 동포 일원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고자 동참하게 됐다”면서 “재외동포청과 헌혈 행사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감동이 북받쳐 올랐다”는 소감을 전했다.

중국 연변에서 왔다는 이광일 씨는 “오래 전부터 헌혈을 하려

고 마음먹었는데 마침 동포총연합회에서 헌혈행사를 한다기에 기꺼이 참여하게 됐다”면서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철환 동포청 차장은 인사말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87만여 명 가운데 67만여 명이 중국 동포들로, 한국과 중국 간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중국 동포들은 중국 사회 내에서도 모범적이지만, 한국에서도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동포총연합회 회원들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면서 “재외동포청 역시 중국 동포들의 정성에 힘을 보태 나눔을 실천하고자 헌혈에 동참하게 됐다”며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행사를 주관한 동포총연합회는 중국 동포 중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 1세대가 주축이 돼 지난 2003년 설립한 전국귀한동포총연합회가 전신이다. 2023년 명칭을 전국동포총연합회로 변경한 이 단체는 한국에 뿌리를 내린 중국 동포들의 삶을 개선하고 권익을 신장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노인복지관서 고려인 동포와 설맞이 봉사활동

이상덕 청장, 인천 복지관서 배식·설거지...위문품도 전달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이상덕(왼쪽서 8번째) 재외동포청장이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봉사활동에 앞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소재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설맞이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상덕 청장은 이날 대한고려인협회 청년단과 고려인지원단체인 (사)너머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MOBK)에 소속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 15명과 함께 복지관 경로식당에서 음식 배식, 식기 수거, 설거지 등을 진행했다. 또 쌀 등 위문품을 복지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16세 청소년부터 52세 청장년까지 다양한 연령의 국내 거주 고려인 동포들이 참여했다. 봉사자들이 능숙하게 한국어를 구사하며 배식과 설거지를 하자 복지관의 어르신들은 흐뭇해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함박마을은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상징적인 지역으로 1만 2천여명이 거주하고 있다. 함박초등학교의 경우 절반 이상이 고려인 차세대 동포들이다.

식사를 마치고 기자와 만난 김영기(72) 씨는 “고려인들은 독립운동가 후손들”이라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이들을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숙경(77) 씨는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서기도(88) 씨는 “고려인 동포들에게 침 치료 등 무료 의료자원을 하고 싶다”며 연락처를 남겨 눈길을 끌기도 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 김 세르게이 씨는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 어르신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너무 기쁘고, 이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더 많이 기여하고 싶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지난 2019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는 백한나(22·경희대 미디어학과 2학년) 씨는 “지역 어르신을 위한 배식 봉사는 처음인데, 앞으로 더 많은 봉



23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에 소재한 연수구노인복지관에서 이상덕(왼쪽서 3번째) 재외동포청장이 최호영(왼쪽서 4번째) 노인복지관장에게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다.

이상덕 청장 “고려인 동포는 소중한 자산, 성공적 정착 돕는 일은 국가적 책무”

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에서 성적 우수 장학금 외에 러시아어 통역 등으로 아르바이트를 해 학비에 보태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청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봉사활동은 고려인 동포와 함께 지역사회 어르신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 동포들과 함께 지역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인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인 책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중국동포들과 함께 고려인 동포들의 국내 정착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동포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의 인구소멸을 해소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대한고려인협회 청년단과 (사)너머 고려인 청소년청년봉사단에 소속된 학생들은 한국으로 이주하는 차세대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대학 또는 대학원 진학과 관련한 현실적인 상담에서부터 F4비자를 받는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각종 행사에도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사)너머 고려인청소년청년봉사단의 경우 대한 독립을 위해 투쟁한 고려인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열린 ‘제105주년 3.17 고려인 만세운동 기념행사’와 한민족이 함께 부르는 ‘제7회 고려아리랑’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기도 했다.

대한고려인협회 청년단의 경우도 지난 2023년 9월 창단돼 회원 수가 189명이나 된다고 홍보팀장을 맡고 있는 채폴리나(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3학년)씨가 전했다.

대한고려인협회 교육담당 이사를 맡고 있으며 2019년에 한국에 온 동포 3세라고 소개한 오예카테리나(33)씨는 “재외동포청에서 고려인들에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런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 드린다”면서 “협회에서도 소속 차세대 고려인 동포 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서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다짐했다. [▶](#)

“상상 못했던 영광...한미 가교 되겠다”

한인 첫 미국 상원 진출 앤디 김 “한미동맹 유지·강화 위해 역할 할 것”

한국계로는 처음 미국 연방 상원에 진출한 앤디 김(42·민주·뉴저지) 의원이 제119대 미 의회 개원일인 지난 3일(현지시간) 취임 선서를 하고 상원 의원으로서의 활동을 공식 시작했다.

이날 김 의원은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내 옛 상원회의장(Old Senate Chamber)에서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서 부인 및 두 아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왼손을 성경책에 대고, 오른손을 든 채 취임 선서를 했다.

김 의원의 부친으로, 김 의원 가정의 미국 이민 1세대인 김정환 씨는 휠체어를 탄 채 아들의 선서를 지켜봤고, 김 의원은 해리스 부통령에게 부친을 소개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 건강상의 어려움(소아마비)과, 거주할 집도 없을 정도의 가난을 겪었던 김정환 씨는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하버드대를 거치며 유전공학자로서 암과 알츠하이머 치료에 평생을 바친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에 보내온 성명에서 “미국 상원에서 나를 키워준 주(뉴저지)를 위해 봉사하겠다고 겸손히 선서한다”며 “한국 출신 이민자의 아들인 나는 자라면서 이 영광을 상상할 수 없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는 119대 의회에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에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회를 주는 데 필요한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강하려면 강력한 파트너십과 동맹이 필요하다”며 “나는 미국과 한국을 잇는 가교 역할과, 우리가 공유하는 번영과 안보를 진전시키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의 탄생은 120년에



앤디 김 의원이 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연방의회 의회 덕스 상원의원 회관에서 열린 한국을 포함한 아태 지역 국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르는 미주 한인 이민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상무·과학·교통위원회를 비롯해 은행·주택·도시 문제 위원회, 보건·교육·노동·연금위원회, 국토안보·정부사무위원회 등 총 4개 상임위원회에 배정돼 활동한다.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시도하면 초당적 반발 있을 것”

이어 앤디 김 의원은 지난 8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 의회에서 아태 지역 국가의 언론을 상대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후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를 시도하거나 시사할 경우 “미국 조야에서 집권 1기 때에 이어) 다시 한번 그것에 맞선 매우 강력한 초당적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의 유지·강화를 위해 상원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한미 협력 관계에 대해 “군사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에서도 강해질 것”이라며 “한미간 전략적 동맹은 군사적 필요에 대해서만 논의되곤 하는데, 나는 기술 분야가 그 관계의 핵심 요소 중 하나가 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앤디 김(왼쪽) 미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3일 워싱턴 DC의 의회 의사당 내 옛 상원회의장에서 상원 의장을 겸직하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그는 또 “인도·태평양지역에서 한국의 관여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주한미군 주둔이 “한국 보호뿐 아니라 대만해협에 관해 대중국 억지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면서 “그래서 트럼프 당선인 등이 마치 우리가 오직 한국 방어를 위해 거기 있고, 아무것도 얻어가는 것이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을 들을 때 좌절감을 느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며 “나는 한국을 책임지는 지위에 누가 있건 간에 미국은 한국의 곁에 서 있을 것임을 한국민들에게 확신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트럼프 당선인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 장악을 위해 군사력과 경제적 강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다고 약속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을 상기하며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파트너 국가들에 강압적인 수단을 쓸 경우 “강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대미투자 유치를 관할하는 상무부를 담당하는 상임위에 속한 김 의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행정부 성과인 반도체법 등에 입각해 한국 기업에 제공되어야 할 보조금을 철회할 경우 조지아주 등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저해함으로써 반발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안정 시급…정치 야심에 현상황 이용해선 안 돼”

또 한국 상황에 대한 견해를 질문받자 “지금은 안정을 위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라며 “특정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상황을 이용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정치인들은 지금 국민들이 모든 언행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지켜보고 있음을 알고, 언행을 매우 신중하고 사려 깊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길 희망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현재의 (한국 국내의 정치적인) 대치 상황을 우려한다”면서도 “하지만 한국의 민주적 절차 속에서 회복 탄력성을 보았기에, 어느 정도 안심한다”고 밝힌 뒤 “상황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초선 상원의원으로서 최우선시하는 정책 과제에 대해 생활비 낮추기, 망가진 정부와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회복, 미국민을 국가안보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거론했고, 아시아계 의원으로서 차별과 증오, 이민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상원의원 취임 선서 때 이민 1세대인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느냐는 질문에 “이 나라로부터 무엇을 얻을지 뿐 아니라 무엇을 돌려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라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아메리칸드림은 탐욕과 최대한의 부(富), 편안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과, (남을) 돕고 지원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장**

조준형 연합뉴스 워싱턴 특파원

미국 상·하원서 ‘미주 한인의날 지정’ 결의안 공화·민주 공동발의

메릴랜드, 주지사 주최 ‘미주 한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과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한인회, 북가주 한인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제122주년 미주 한인의 날 기념식 및 2025년 한인회 사무식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1903년 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처음 도착한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하는 결의안이 119대 미국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다.

상원에서는 한국계 첫 상원의원인 앤디 김 의원(민주·뉴저지)과 댄 설리번 의원(공화·아칸소)이, 하원에서는 한국계인 영 김 의원(공화·캘리포니아)과 지미 고메즈 의원(민주·캘리포니아)이 각각 상·하원에 공동으로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영 김 의원이 보도자료 통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영 김 의원은 “122년간 한국계 미국인들은 학교와 직장, 심지어는 의회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저는 남캘리포니아 한인 커뮤니티의 대표이자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중 한 명으로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결의안을 주도하게 돼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아메리칸드림이 미래 세대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원 결의안에는 한국계 의원인 데이브 민(민주·캘리포니아),

매릴린 스트리클랜드 의원(민주·워싱턴)과 함께 54명의 의원이 결의안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3선인 영 김 의원은 117대 및 118대 의회에서도 유사한 결의안을 주도한 바 있다.

한편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미주한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는 행사에서 올해 1월 13일을 메릴랜드 내 ‘미주 한인의 날’로 선포하는 선포문을 발표했다고 주한 미국 대사관이 보도자료 통해 밝혔다.

조현동 주미대사는 기념식에서 “초기 한인 이주민들의 결의와 자부심, 용기가 오늘날 든든한 한미 동맹의 기초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취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사는 무어 주지사에게 한국과 메릴랜드주 간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를 증정했다. 조 대사는 또 아루나 밀러(Aruna Miller) 부지사의 시아버지로, 한국전 참전용사였던 고(故) 재크 밀러 씨에게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평화의 사도 메달을 유족에 전달했다. [▶](#)

“한미 경제 · 안보동맹 더욱 굳건히 유지해야”

한국계 영 김 미국 하원의원, 하원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에 또 선임돼

한국의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이 약해지지 않도록 미국이 한국에 더 관심을 갖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미국 연방 하원의 한국계 영 김 의원이 주문했다.

공화당 소속인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은 6일(현지시간) 정치매체 ‘더힐’ 기고에서 “한국이 최근 정치적 혼란을 겪는 가운데 우리의 경제, 안보 동맹을 굳건히 유지해야 한다. 한국이 최대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지만, 난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인의 헌신을 믿는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미국이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는 데 한국이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에서 한국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탄핵 정국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가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미국 언론을 포함한 언론의 보도가 반(反)윤석열 시위에 매우 집중해왔지만,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도 매일 서울의 중심인 광화문으로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안타깝게도 서방 미디어는 이런 이미지를 대부분 무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 김 의원은 최근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공화·플로리다)은 “김 의원은 중국 공산당의 뒷마당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전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쉽게 알리기 위해 일하는 투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동아태 지역은 미국의 가장 큰 지정학적 경쟁지역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강력한 동맹·파트너가 있는 곳”이라면서 “미국의 미래 국가안보는 이 지역에서의 미국 외교 정책 결정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 지역에서 인권을 증진하고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들을 지지하고 동맹국과의 자유 무역을 강화하는 한편 적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태 소위는 동아태국을 비롯한 국무부의 동아태



영 김 미국 연방 하원의원

지역 관련 업무 등을 관할한다. 김 의원은 직전 118대 의회에서는 외교위의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직을 지냈다.

인천이 고향인 김 의원은 서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1975년 가족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건너가 중교교를 다녔고,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에 입학하면서 미국 본토로 이주했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뒤 은행 근무, 의류 사업 등의 이력을 쌓은 그는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남편의 권유로 공화당 소속 친한파였던 에드 로이스 전 연방 하원의원 보좌관으로 21년간 활동하며 정치 경험을 쌓았다. 이 기간에 아시아 정책을 주로 맡아 한미관계, 북한 인권 관련 법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역점을 뒀다.

김 의원은 캘리포니아주 주의원(2014~2016년)을 거쳐 2018년 처음 연방하원의원 선거에 도전했으나 접전 끝에 고배를 마신 뒤 2020년 재도전에서 승리하며 연방 하원에 입성했다. 이후 2022년과 작년 무난히 재선과 3선에 성공하며 공화당 내부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다. [▶](#)

“뇌사 판정 40일 만에 기도가 만든 기적의 생환 드라마”

두산 회장 출신 박용만 이사장, 평화방송 특집다큐 통해 프랑스 한인 입양인 자녀 ‘메일린’ 스토리 소개

“**뇌**사 판정을 받은 아이가 전구(轉求·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은혜를 구하는 행위) 기도로 40여일 만에 깨어나 완치된 기적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평화방송이 지난해 12월 24일 성탄 특집 2부작으로 방영한 다큐멘터리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의 진행자로 참여한 전 두산그룹 회장인 박용만(68) ‘같이 걷는 길’ 이사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의사가 의학적으로 절대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가족과 주변의 기도가 만든 기적의 드라마”라며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한인 입양 여성 나팔리 인실 트랑(한국명 인실)의 딸인 메일린은 3살 때인 2012년 식사 중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 뇌사에 이르렀다.

병원 이송까지 40분을 넘기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늦어져서다. 의사들은 안락사를 권유했지만, 가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메일린의 가족은 19세기 교황청의 성직자를 위한 단체인 전교회를 세웠던 독실한 신도였던 폴린 마리 자리코의 이름을 빌려 9일간 전구 기도를 했다. 메일린의 안타까운 사연을 들은 수만 명의 이웃과 신도들이 기도에 동참했고 메일린은 의식을 회복했다.

바티칸은 이를 기적으로 승인했고, 2년 전 자리코는 가톨릭의 성인 이전 단계인 복자(福者)로 시복됐다. 세 살이었던 메일린은 어느덧 열다섯 살 소녀로 성장해 프랑스 안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박 이사장, 평화방송에 다큐 제작 제안

가톨릭 신자인 박 이사장은 지난 5월 바티칸을 방문했을 때 메일린의 기적에 대해 들었고 이를 국내에 널



박용만(오른쪽서 2번째) ‘같이 걷는 길’ 이사장이 지난 10월 프랑스 안시에서 메일린 가족을 만나 뇌사판정과 회복 과정이 담긴 앨범을 함께 보고 있다. 같이 걷는 길 제공.

리 알리기 위해 가톨릭평화방송에 다큐멘터리 제작을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월부터 11월 사이에 프랑스 리옹·니스, 스위스 제네바,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등 이동 거리만 4만1천km에 달하는 11개 도시를 돌며 기적의 현장과 목격자 및 증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영상에 담았다.

바티칸은 시성부, 신앙교리부, 복음화부 등 교황청 핵심부서 3곳에 대한 촬영 허가도 내주었다. 교황청은 현대의학에서 치료법이 없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즉각적인 완치 이후 재발과 후유증 없이 신학적으로도 연구해서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교황의 승인을 거쳐 기적으로 선포한다.



로마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청 신앙교리부 차관보 필립 퀴르블리에 대주교(사진 왼쪽)와 대화하고 있는 박용만 이사장. 같이 걷는 길 제공



바티칸 사성부의 기적 문서 아카이브에서 메일린의 기적 문서를 열람하는 박용만 이사장(왼쪽).

박 이사장은 “메일린이 완치됐지만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은 것을 지켜본 이후에 기적으로 인정받았기에 최근에서야 사연이 알려진 것”이라고 소개했다.

바티칸, 교황 승인 거쳐 기적으로 선포

그는 촬영 과정에서 가톨릭 기적 분야 최고 권위자를 비롯해 7명의 바티칸 성직자를 만났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 다큐멘터리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성탄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는 추천사도 전했다.

두산그룹 회장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한 뒤 봉사 활동에 전념해온 박 이사장은 2020년부터 재단법인 ‘같이 걷는 길’ 이사장을 맡아 독거노인 반찬 배달을 비롯해 소외계층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앞장서 왔다.

박 이사장은 이번 촬영에 함께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평화로워졌다고 술회했다.

그는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불안과 초조함을 갖고 있는데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기적을 목격하고 나니 겸손해지고 위로가 됐다”고 기뻐했다.

박 이사장은 “바티칸이 매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기적이 10여 건에 달하지만 실제로 보고되지 않은 일, 다른 종교에서 목격된 일 등을 더하면 수많은 기적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라며 “현대 의학으로 풀지 못하는 치유의 기적을 보면서 자연과 우주 그리고 신의 섭리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는 소감도 전했다.

메일린 스토리 프랑스서 책으로 소개

메일린의 기적 이야기는 프랑스에서 책으로 소개됐고, 내년 초에는 국내 출판사인 마음산책에서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출간된다.

메일린과 가족을 내년 봄에 초청할 예정인 그는 “너무 맑고 순수하게 자

란 아이에게 어머니의 모국인 한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과의 끈을 이어서 성장하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소외계층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그는 “타인을 돕는 일은 처음에 서투르고 어리숙해 보여도 그때가 그 일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크기 마련”이라며 “뽀내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장은 “안락사 권유를 뿌리치고 끝내 기적을 일궈낸 데에는 자신이 입양인이었기에 자식을 절대 놓지 않으려는 모친의 의지와 신심이 작용했을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모친의 응어리도 풀 수 있도록 친가족 찾기를 돕고 싶다”고 밝혔다. [▶](#)



가톨릭평화방송이 방영한 특집 다큐멘터리 ‘죽음에서 돌아오다, 메일린의 기적’. 같이 걷는 길 제공.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힘 두툼하게 만든 게 큰 보람”

한인2세를 정치권에 진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는 1993년 미주 한인들을 상대로 한 시민권 획득, 투표권 행사 등 정치참여 노력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미 연방의회에 미주 한인들의 현안 전달과 권리 신장, 한미관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2007년 미 하원의 일본군위안부결의안(하원결의안 121호)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데 크게 기여했으며, 2013년 KAGC를 출범시킨 이후 미국 연방의회에 한인들의 현안을 전달하고 한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입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근 한국협상학회가 선정한 '2024 대한민국 협상대상'을 수상했다. 김 대표를 서면으로 만났다.

'2024 대한민국 협상대상' 수상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미주한인사회는 매우 다양하고 제각각인 집단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 30여년 이상 미주한인사회에서 정치참여 운동을 하는 저의 원칙은 주장이나 입장에서 중간자리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계적 중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계 이민자의 정치적 결집이란 좁혀진 내용 가운데에 편안한 중심입니다. 이러한 거래, 중재, 협상, 협력, 그리고 최선의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저의 활동내용에 이 학회가 주목했다고 봅니다. 수차례 사양했지만, '상'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30여년간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보람된 일을 꼽는다면 무엇인가요?

가장 큰 보람은 미국 내 한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열의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활동을 시작할 때인 1990년대 초반엔 한인들이 유권자, 선거, 정치인 등에 정말 관심이 없었지요. 한인밀집지역임에도 투표소에서 한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지요. 100명중에 3~4명 정도가 투표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한인시민권자중에서 적어도 절반 이상은 유권자로 등록을 했구요, 대통령선거 때엔 그중에서 60% 가량 투표에 참여합니다. 큰 변화입니다. 저는 특별하게 알려진 '일본군위안부결의안'이나 '비자면제프로그램', '한미FTA' 보다는 이렇게 한인사회의 정치적인 힘을 두툼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큰 보람을 갖습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대표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올해 계획과 향후 목표는 무엇인지요?

트럼프는 MAGA(미국을 위대하게!)라는 사회운동의 힘으로 다시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MAGA의 기본 이념은 '백인우월주의, 기독교민족주의, 미국우선주의'의 결합입니다. 다양, 평등, 포용을 발양시켜온 이민의 나라 미국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포용과 관용은 없습니다. 유권자연대는 한인만을 외칠 수 없습니다, 이민자 소수계들과 연대해서 반이민 인종차별과 싸워야 할 아주 엄중한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아시안계의 일원으로 이민자권익과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정치권안의 이슈에 주목해서 싸울 각오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무국적입양인시민권법안'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양제도 사각지대에 몰려 미국인이란 시민권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무국적입양인중에서 절반 이상인 2만여 명이 한인입니다. 수년전부터 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연대는 이를 위해서 연방의회를 직접 찾아다니면서 시민로비를 펼치고 있



지난 2023년 6월 21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KAGC 사무실 개소식에서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왼쪽부터), 조시 고트하이머 하원 의원, 영 김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 송원석 KAGC 사무총장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습니다. 반드시 해 내야 할 일입니다. 또 유권자연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은 한인2세(한인대학생)들을 정치권에 직접 경험토록 해서 미 정치권이나 연방의회로 진출시키는 일입니다. 이 일을 꾸준히 추진해 온 결과 많은 한인들이 연방의회와 연방정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큰 성과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앤디 김의 상원의원 당선과 한인 정치인들의 대약진이 돋보입니다.

122년 한인이민역사 가운데에 비로소 한인이 상원에 입성했습니다. 현재 100명의 상원의원 중 아시아계가 3명입니다. 그중 한 명이 앤디 김입니다. 상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대통령급입니다. 그래서 앤디 김의 상원입성은 미 전역의 한인2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앤디 김이 중앙정치권에서 스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가 미국이란 국가에 맞는 리더십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수 중간층 백인들이 그에게 열광합니다. 나는 2028년 민주당 대통령후보군에 앤디 김의 이름이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한인 정치인들의 영향력 확대와 정계 진출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치적 영향력의 기본은 시민의식입니다. 미국 내 한인들이 타 소수계들과 잘 협력해야 하는 문제가 우리의 정치력을 담보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인들은 일단은 미국시

민임을 확고하게 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측면만을 취하는 것은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미주한인들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한 디아스포라입니다. 재외동포로서의 아이덴티티, 유권자등록, 투표참여라는 기본 실천에서 이제는 한인들이 이러한 수준 높은 각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한미관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하시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푸틴,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 등의 권위주의 독재자들을 인정하고 상대합니다.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면 누구든지 거래를 합니다. 한미관계도 철저하게 미국 이익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할 것입니다. 바이든 정부 때에 비하면 힘을 바탕으로 요구하는 것이 엄청 많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것은 외교·안보뿐만 아니라 경제·무역·사회·문화 측면에서도 요구하고 금지하는 일이 빈번해질 것입니다.

한국 내 정치적 안정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여·야 지도자가 양극단적일 것이 아니라 입장이 달라도, 일단은 마주앉아서 협력을 모색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에 양당의 '문제 해결위원회' 라고 있습니다. 민주당내 보수적 성향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내 진보적 의원들 각각 20여 명씩입니다. 이들은 이념과 정책에서 양당이 근접할 거리에 위치한 의원들입니다. 여·야가 격하게 대치할 때 이 위원회가 작동을 합니다. [\[창\]](#)

“2025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축제의 장으로”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명예회장 “한국 문화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

“예 전에는 품질이 떨어져도 애국심 하나로 모국 제품을 시장에 알렸는데 이제는 현지 바이어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하면 엄지척을 해줍니다. 중소기업이 자신감을 갖고 해외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도록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4월 17~20일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2025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준비에 한창인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미주한상총연)의 황병구 명예회장은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중소기업의 미국 판로 개척을 돕는 비즈니스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미주한상총연은 원래 같은 장소·기간에 ‘제1회 미주한인비즈니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재외동포청이 주최하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에 성공해 대회를 격상하게 됐다.

2년 전 캘리포니아 오렌지카운티 애너하임에서 열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황 회장은 “동포청과 함께하게 돼 대회 위상과 규모도 커지고 더 짜임새 있게 열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국내외 한상(韓商) 간 ‘한민족 경제인 네트워크 구축’과 비즈니스 교류를 통해 모국 수출 확대 및 동포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다. 매년 국내에서 개최돼 오다가 2년 전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열렸다.

황 명예회장은 2번째 해외 개최인 내년도 대회와 관련, “애틀랜타를 비롯한 미국 동부 지역의 한인 사회 원로들은 이민 120년 만에 열리는 동포사회 최대 행사라고 기뻐한다”며 “동포사회뿐만 아니라 현지인도 함께 어우러져 ‘K-콘텐츠’의 매력을 널리 전하는 자리로 만들자며 모두 의기투합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1980년에 미주 내 한인상공인들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미주한상총연은 6개 지역협의회, 79개 지역 상공회의소, 글로벌 비즈니스 운영본부 등을 갖추고 비즈니스박람회 및 세미나 등을 매년 열고 있다.

황 회장은 이 대회가 한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뿐만 아니라 한미 양국 간 경제교류 및 동맹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



황병구 미주한상총연 명예회장

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미주한상총연은 양국의 중소기업, 정부·지자체 등에서 최대 1만5천여명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수출상담회에는 다양한 상품군을 소개하는 450개 부스를 개설할 계획이다.

1대1 바이어 미팅, 스타트업 피칭, 벤처 투자 포럼, 미국 정부 공공조달 사업 포럼 등 수출 상담과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황 회장은 “조지아주에는 현대·LG·SK·한화 등 대기업·중견·중소기업이 283개나 진출해 있다”며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중견 기업 등도 대회에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주한상총연은 이번 대회를 비즈니스 교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31개국 차세대 동포 441명, 한국 배우며 한인 정체성 키워

동포청 · 재외동포협력센터, '7·8차 모국 초청 연수' 진행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한 '제8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개회식이 15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진행됐다.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전 세계 31개국에 거주하는 차세대 동포 441명을 한국으로 초청, 한국을 배우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모국연수를 시행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제7차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에는 31개국 253명의 청소년이, 14일부터 진행한 제8차 연수에는 31개국 188명의 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연수는 각각 일주일 동안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발전상을 돌아봄으로써 모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 문화·역사 및 발전상 체험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연수사업은 재외동포청이 주최하고, 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가 주관했다.

제7차 연수 참가자들은 서울, 부여, 대전 일원에서 전통문화와 K-팝 등 과거와 현재를 체험하고, 일본에 한자를 전해주는 등 높은 문화 수준을 가진 백제의 해양 진출 역사 등에 대해 배웠다. 특히,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우주 진출 과학기

술과 증강현실로 구현한 스포츠도 체험했다.

제8차 연수는 서울과 부산 및 인천의 역사, 문화 체험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한 글로벌 대응 등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도 운영

참가자들은 ▲경기도 시흥 소재 서울대학교에서 개회식 개최 ▲해양과 과학의 도시 부산 역사 및 문화 체험 ▲서울 역사·문화 및 발전상 견학 ▲한복 페스티벌 등 한국의 예절 문화 체험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시민액션 프로젝트 수행 등의 주요 일정을 소화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5일 8차 연수 개회식에 참석해 "차세대동포의 모국 초청 연수는 차세대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청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연수 기간 차세대동포 간, 차세대동포와 모국 친구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인 정체성을 함양해 거주국과 모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

12개 지자체와 맞춤형 동포 정착지원 사업 첫 추진

재외동포청, 광주광역시·안산시 등 12개 광역·기초단체의 13개 사업 지원

재외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2025년도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지원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맞춤형 정착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지자체 보조사업 공모에는 13개 광역·기초 단체가 16개 사업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동포 밀집 지역인 광주광역시, 안산시 등 12개 지자체의 13개 사업이 선정됐다. 사업 선정 기준으로는 ▲실질적인 지원 효과 ▲사회적·정서적 적응 지원 여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식개선 ▲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여부 ▲지역별 형평성 등이 고려됐다.

최근 국내 체류 동포가 86만명을 넘어 지속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재외동포청이 지자체를 통해 국내 체류 동포를 지원하는 것은 동포청 출범 이후 처음이다.

동포청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저출산과 지방 소멸 위기 상황에서 국내 체류 동포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국내로 귀환하는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함께 우리 동포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동포청은 기대하고 있다.

이상덕 청장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자체와 협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 지원 차원에서 2월 7일까지 민간 단체 지원을 위한 '2025년 국내 체류 동포 관련 단체 지원사



지난 12월 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국내 체류 동포 정책 학술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업'을 공모 중이며, 내달 초에는 '국내 체류 동포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연구용역 입찰 공고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포청은 지난 12월 6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2024 국내 동포 정책에 대한 정부·학계·시민단체와의 대화'를 주제로 재외동포 정책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만을 정책 대상으로 보았으나 국내에 들어와 거주하는 동포들을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새로운 아젠다와 패러다임을 위한 첫 학술포럼이라는 점에서 뜻 깊은 행사였다.

이상덕 청장은 인사말에서 "동포청은 국내 체류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경비를 2025년 예산에 처음으로 반영했다"며 "새해부터는 국내 동포 정착 지원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

고려인 교사들 “까레야 우라...한민족 자긍심 심을 것”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으로 한국외대서 한국어 교수법 심화·문화 체험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앞에서 힘껏 ‘까레야 우라’를 외쳤죠. 선조들이 어떻게 모국을 지켜냈는지 알고 나니 감사한 마음에 울컥했습니다. 이제 돌아가면 차세대에게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주는 데 앞장 서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산하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 초청으로 ‘CIS 한국어 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고려인 한국어 교사들은 10일 소감을 묻는 말에 “실력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뿌리 의식이 커진 게 제일 큰 수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까레야 우라’는 최근 개봉한 영화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 역할을 맡은 배우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후에 외친 러시아어로 ‘대한독립 만세’란 의미다.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 온 20명의 교사는 지난 2일부터 한국외대에서 실시 중인 연수에 참여했다. 이번 연수는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은 연수 기간 하얼빈을 관람했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도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한국교육원의 한국어 담당 교사인 김 예카테리나(31) 씨는 “영화를 보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방문해보니 우리 선조가 얼마나 힘든 시련을 이겨내고 독립을 이뤘는지 깊이 이해하게 됐다”며 “역사관을 나서며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부끄럽지 않은 후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키르기스스탄 비슈케크 소재 미래한글학교에서 온 쉐 율리아(23) 교사는 “경력이 짧아 교사란 직업에 확신이 없었는데 한국어와 교수법을 집중적으로 배우고 선배 교사들의 노하우를 들으면서 자신감이 부쩍 늘었다”며 “무엇보다도 고려인의 역사와 문화에 대



‘CIS 한국어 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고려인 교사들이 2일 외국어대학교에서 열린 개회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해 알차게 배운 덕분에 교단에 계속 설 자신감이 생겼다”고 기뻐했다.

러시아 남부 로스토프나두노 소재 폴리쇼프카한글학교 교사인 유가이 따찌아나(37) 씨는 “실습수업을 통해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배웠다”며 “보고 배운 것을 고려인 차세대에게 열심히 전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즈베키스탄 정규 중등학교인 치르직21번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27년 경력의 차 스베틀라나(67) 교사는 “어린 시절부터 어르신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어를 잘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말을 거의 잊고 살았다”며 “나이 들어 뿌리 의식이 생겨 다시 배웠기에 우리말과 문화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차세대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장**

동포청, 충북도에 미국 애틀랜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여 요청

이상덕 청장, 김영환 도지사 만나 국내동포 정착 지원 사업도 설명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16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도지사를 만나 “오는 4월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 비즈니스대회’가 충청지역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동포청은 이 대회를 오는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이는 2023년 제21차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해외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이번 대회에서 동포청은 유망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스타트업, 청년 기업인들에게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국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또 이날 김 도지사에게 국내 체류 동포들의 정착지원을 위한 재외동포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 계획을 설명하면서 충북도내 거주하는 동포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도 함께 요청했다.

동포청은 국내 청소년 대상 재외동포 이해 교육을 실시해 국내



포즈를 취한 이상덕(왼쪽) 재외동포청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동포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포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국내 동포의 정주·정착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인천대와 재외동포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

17일 인천대서 MOU 체결...취업 지원·채용분야 등도 상호협력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이 재외동포 교육과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국립 인천대(총장 박종태)와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17일 인천 송도에 있는 인천대 본관에서 이상덕 청장과 박종태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 대상 교육 또는 연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외동포 대상 취업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재외동포 기업 채용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국내 거주 재외동포 대상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이 담겨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 발



업무협약서를 펼쳐 보이며 포즈를 취한 이상덕(왼쪽) 청장과 박종태 총장

전을 도모하고,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해 나가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외동포를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 취업 및 채용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덕 청장은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에 대한 교육 강화와 차세대 동포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체결했으며, 동포청과 인천

대학교가 재외동포분야 협력을 통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 애틀랜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자 등록 개시

15일부터 홈페이지서 진행...전시부스 참여기업 · 일반인 참관객 등록

재외동포청은 오는 4월 17~20일 미국 애틀랜타 가스 사우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참가자 등록을 15일부터 시작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 대회는 국내외 재외동포 기업인 등 3천명 이상이 참가하는 재외동포 경제인들의 최대 규모 행사다.

이날 시작하는 1차 등록은 제23차 대회 공식 홈페이지(www.wkbc.us)를 통해 진행한다. 1차 등록 대상은 기업전시회에 참가해 부스 개설을 희망하는 기업과 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일반참관객이다.

1차 등록에 이어 일대일비즈니스미팅 등을 희망하는 국내외 바이어를 대상으로 추후 2차 등록을 실시할 계획이며, 추후 일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대회 관련 문의 사항은 대회 사무국(02-303-6965)으로 연락하거나 추후 한상넷(www.hansang.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대회를 통해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의 지역별·분야별 연계를 강화해 글로벌 경제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진흥을 적극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사진은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안내문

모국 찾아 자긍심 키운 재일 청소년들 “한국어 계속 배울 것”

재외동포청 초청 16명, 역사 교육·문화 체험하며 한국어해 심화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모국 초청 연수에 참여한 차세대 재일동포들이 수료식에서 한목소리로 한국어를 계속 배울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28일 시작해 1월 5일까지 경인교육대에서 이어진 ‘재일동포 한국 이해과정’에는 일본 각지에서 청년과 청소년 16명이 참가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의 언어와 역사 교육, 문화 체험을 통해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한글을 배우면서 자신의 이름을 새긴 도장을 만들고, 전통 악기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익혔다. 또 비무장지대(DMZ)를 찾아 모국의 분단 현실을 확인하며 역사적 아픔과 평화의 가치에 대해 공감하는 기회도 가졌다.

특히, 전통악기 과정에서는 재일 3세로 국악 및 타악기 분야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음악가 민영치 씨가 자신과 같은 배경을 가진 후배들을 위해 강사로 참여했다.



‘한국 이해과정’ 연수에 참가한 재일동포 차세대들.

국립국악고를 나온 그는 타악을 위주로 활동하며 세계사물놀이 겨루기 설장구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우리 국악과 재즈를 융합한 ‘신한악’이라는 장르를 개척했다.



재외동포청장, LA한인회에 산불 피해 위로…“적극 지원할 것”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도 추모…“유가족에 깊은 위로” 전해

재외동포청은 이상덕 청장이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확산 중인 산불 피해에 대한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청장은 산불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전하며, 안 회장으로 부터 피해 현황을 청취하고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인회를 격려했다.

또한 “LA 동포사회가 재외공관을 통해 필요한 구호 물품 등을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한인회에서 구호품 모집활동을 전개해 마스크 10만개 등을 피해 지역에 전달했고, 타지역 한인사회에서도 후원 물품을 보내오는 상황”이라며 “정확한 파악은 현재 어렵지만 한인사회에도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포청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이에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발생 다음 날인 30일 동포청 홈페이지 팝업창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등으로 위로를 전했다.

재외동포청은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드린다”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LA한인회, LA 산불 피해자 지원 위한 구호품 모집 안내

재외동포청, 인하대와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 위해 협력

24일 동포청서 MOU 체결...동포정책 관련 학술 교류·네트워크 구축도 진행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재외동포정책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인하대(총장 조명우)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4일 인천 연수구에 있는 재외동포청 본청에서 이상덕 청장과 조명우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MOU에 따라 두 기관은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재외동포정책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는 ▲재외동포정책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재외동포정책 관련 학술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상덕 청장은 “인하대는 하와이 이민 1세대 동포들이 고된 노동을 하면서도 조국의 교육을 위해 헌신적으로 모은 성금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이라면서 “인하대와의 이번 협약이 재외동포정



업무협약서를 펼쳐 보이며 포즈를 취한 이상덕(왼쪽)청장과 조명우 인하대 총장.

책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재외동포 산업 기반 확대 등 다방면의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자흐스탄 차세대 동포,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환경과 과제



카자흐스탄에는 현재 약 12만 명의 고려인들이 살고 있다. 4만여 명의 고려인이 사는 알마티는 카자흐스탄 내 최대 고려인 거주지 일뿐 아니라 도시의 랜드마크인 공화국 궁전, 카자흐스탄 호텔, 소년 궁전은 물론이고 천산산맥의 산사태로부터 이 도시를 지키는 메데우 댐도 고려인 건축가가 설계하고 건설 했다.

카자흐스탄 꼬즐오르다에는 홍범도 기념공원과 홍범도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전국에 걸쳐 고려인의 이름을 딴 거리가 32개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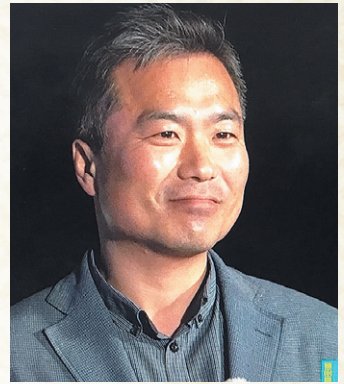
포브스 지가 발표한 2024년 카자흐스탄 자산가 순위를 보면, 고려인 김 베체슬라브 카스피 은행 회장이 1위, 김 블라지미르 카작프스 회장이 4위에 올랐다. 가히 카자흐스탄은 고려인의 나라라고 말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이다.

카자흐스탄의 주 언어는 카자흐어이지만, 3개 국어를 사용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늘고 있다. 카자흐어는 조상들의 언어로 여겨지며 생활 속에서는 러시아어가 많이 사용되는 편이지만, 영어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한국어는 K-팝, K-드라마와 함께 현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듯 고려인들의 위상이 높고 한국어 열풍이 일고 있는 카자흐스탄에서는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또 하나의 언어로서 한국어 교육이 잘 진행되고 있다. 동시에 고려인 차세대들에게 민족 정체성을 유지, 신장시켜주는 데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는 중, 고등 과정에서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채택해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고, 비정규 과목으로 가르치는 일반 학교도 있다. 과학영재를 양성하는 국립 '나자르바예프 영재학교'는 전자에 해당되고 일주일에 2시간씩 수업을 하고 있다.

1991년에 문을 연 알마티한국교육원에서도 한국어 교육이 진행된다. 2024년의 경우 한국교육원 수강생 수는 3천200 명이다. 또한 전국에 25개의 한글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된다고 평가받는 꾸나예프 한글학교는 주로 초,중, 고등 과정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 후에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고려인 동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글학교에서는 우리말과 함께 건강 강좌와 수지침 강의, 한국사 등도



김상욱
카자흐스탄 알마티 고려문화원 원장

함께 가르치고 있다.

한국어 사설 학원도 성업 중인데, 단기간에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를 높이기 위한 이들이 주요 수강생들이다. 한국어과 졸업생이 원장으로서 직접 운영하는 학원을 비롯해 100여개의 학원이 운영 중이다.

마지막으로, 현지 대학의 한국어과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어 교육이 있다. 구 소련의 개혁개방정책이 시작되던 1980년대 후반기, 모국어 재생 운동을 강력하게 펼쳤던 박일, 정상진 선생 등에 의해 알마티국립사범대학교에 한국어과가 개설된 것이 시초이다. 필자는 한국정부에서 이 대학에 파견한 최초의 한국인 교수로서 북한에서 파견된 교수들과 함께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과를 운영하였다. 현재는 북에서 파견된 교수들은 모두 철수했고 학과의 이름도 조선어과가 아닌 한국어과로 바뀌었다. 당시, 이분들은 카자흐 정부에 모국어 재생을 위해 한국어 교원 양성의 필요성을 호소한 끝에 학과 개설 허가를 받아 낸 것이었다.

이후 카자흐스탄국립대학교와 연해주 원동사범대학의 후신인 꼬즐오르다 국립대학교,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딸피꾸르간 뿐만 아니라 수도 아스타나의 나자르바예프대학, 유라시아국립대학에도 한국어과가 개설되어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중 세종학당으로 지정되어 한국 정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고 있는 학과도 있다. **창**

※ 기고자의 주장이나 의견은 재외동포청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외동포청 주요 일정

- 2025년 재외동포청 시무식(1월 2일)
- 국내 체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1월 21일)
- 동포청-고려인동포단체 공동 사회공헌활동(1월 23일)

2025년 1월 재외동포청장 동정

- 2일: 2025년 정부 시무식
2025년 재외동포청 시무식
- 3일: 2025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
- 9일: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신년인사회
- 15일: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연수 개회식
- 17일: 재외동포청-인천대학교 업무협약
- 21일: 국내 체류 동포와 함께하는 헌혈 행사
- 23일: 동포청-고려인동포단체 공동 사회공헌활동
- 24일: 재외동포청-인하대학교 업무협약

재외동포청 공지

“중소기업 해외 진출의 모든 것, 한상넷서 확인하세요”

재외동포청, 20일부터 중소기업·스타트업 해외 판로개척 지원 온라인 자문 개시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지난 20일부터 국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온라인 자문 서비스를 ‘한상넷’(www.hansang.net)에서 개시했다.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재외동포 경제인들로 구성된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별칭 OKBiz)’이 온라인에서 해외 판로개척에 대한 자문을 진행한다. OK Biz는 재외동포청이 전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재외동포 경제인들로 구성된 자문단으로 해외 시장 동향, 지역별 비즈니스 특성, 법적 이슈 등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시장 개척과 사업 확장을 위해 필요한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관심있는 국내 기업이나 기업인은 누구든지 무료로 한상넷에 접속해 자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0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한 기업인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신세계 상품권 ▲10만원권 1명 ▲5만원권 1명 ▲1만원권 10명 등)도 제공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온라인 자문 서비스가 한상넷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 재외동포 경제인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상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국내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해외 시장 초기 진출에 대한 정보를 얻고,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한상 네트워크를 활용한 이번 온라인 자문 서비스는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한상넷을 중심으로 국내외 경제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ANSANG **2025 한상넷 OK BIZ 자문단 페이지 오픈 이벤트**

재외동포청은 한상넷에 중소기업의 해외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온라인 자문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전 세계의 분야별 해외시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OKBiz)이 해외 진출에 대한 상담을 해드리며, 이벤트 기간에 자문을 신청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방법

- 01 한상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및 회원가입
- 02 비즈니스정보 > 재외동포비즈니스자문단 메뉴 이동
- 03 자문요청을 원하는 자문위원 클릭
- 04 자문내용 작성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자동참여

이벤트기간 25년 01월 20일(화) ~ 25년 02월 07일(과)
당첨자발표 25년 02월 12일(화)

이벤트경품

- 100,000 1명 신세계상품권 10만원
- 50,000 1명 신세계상품권 5만원
- 10,000 10명 신세계상품권 1만원

이벤트 참여하기 →

한상넷 온라인 자문 개시 관련 이미지.



700만 재외동포와 대한민국이 하나로 통하는 첫 번째 온라인 세상 코리아넷

코리아넷 회원에 가입하시면 재외동포 소식, 재외동포 단체,
재외동포청 지원사업 등 관련 정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빛나기까지 **재외동포**도 함께했습니다.



하와이의 뜨거운 사탕수수밭과
중남미의 선인장 농장에서 번 돈은
우리의 **독립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현지 송금은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에서
소중한 종잣돈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총영사관** 등
공관 10개 중 9개는
재외동포의 기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을 개최할 때,
또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에도
재외동포는 힘을 모아 주었습니다.